

‘양주시민 행정서비스 만족한다’

양주시 2007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

양주시는 고객중심의 일류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2007 양주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주시민은 시정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는 9월10일부터 9월2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전화 및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민원접수자, 행정처분자 및 방문고객 등 1만39명(유효표본 990명)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분야 5개 문항, 민원행정 분야 7개 문항 등 12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89%, 민원행정서비스는 94%의 시민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만족도 분석 결과 일반행

정 분야에서는 ▶다른 시에 비하여 살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87.6%의 시민이 타 시와 비슷하거나 더 살기 좋다고 응답했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9%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시의 시책사업 중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 분야에 대한 답변에서는 도시개발(민원서비스)·복지환경 순으로 ▶택지개발 등 도시화 진행 관련 최우선 해결 분야는 도로교통·지역경제·주거환경 순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교통·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도가 94.5%▶민원신청 및 처리 절차 만족도가 94.6%▶민원처리 속도 만족도 94.3%▶시민의 기대치 대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94.3%▶과거와 비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4.0%가 만족이라 답했다.



양주시는 고객중심의 일류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2007 양주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주시민은 시정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관한 팽목자 생활민원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다 나

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자료로 제시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자체방역 및 임상관찰 예방활동 강화



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2008년 2월말까지 농축산과장을 실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마련 7개소 21명의 민원인들이 평일에는 21:00까지, 공휴일은 17:00까지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월회 이상 지역방역협의회 개최 방역추진 상황 평가 및 협의 등 취약지역 위주의 방역지역 설정하여 가상훈련

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운영 ▶닭·오리 임상관찰 및 예방강화 ▶매주 소독의 날 운영 등 농가별 차단방역 지속 추진 ▶철새·뒷새와 사육가금과 접촉방지를 위한 차단조치 등 교육·홍보 강화와 조류독감 예방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1일 2회 이상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축 발견 시에는 질병신고전화(820-2462/820-0200)를 이용해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시달렸다.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 가축·사료·악물·분뇨 등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하고 농장 주변 소독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닭과 오리농가의 사육현황을 재확인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통제소 및 매물 지위지선정 등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 11월중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조류독감 유입가능성이 높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를 특별관리하고 종계장과 부화장을 일제점검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사하는 토종닭이나 오리가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물막 등 차단조치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축산 농가에 교육 및 홍보할 예정이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청소년 상담센터 인지행동 집단상담 운영

양주시 청소년 상담센터는 11월 6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상담은 청소년들의 자존감, 자의존감을 높이고 ▶자존감 사고 개념 이해 ▶인지적 왜곡 유형 찾기 ▶인지적 왜곡 개념의 이해 등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

‘우리는 친한 친구야! 학교폭력은 NO!’

전국중학교 친한 친구교실 운영 효과 만점

전국중학교는 지난 4월부터 학생 사안을 일으킨 40여명의 학생들이 '친한 친구교실'에서 모두가 소중한 친구임을 깨달아 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친한 친구 교실'은 주위 산만,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응력을 높이고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여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는 2007학년도 상반기에 징계를 받은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동아리 활동, 비전캠프, 체력훈련, 사색과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을 운영해왔다.

또한 단기과정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글쓰기, 마음 닦기, 책 읽고 글쓰기, 토론을 통해 잘못된 원인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삶의 귀감이 되는 글을 옮겨 쓰고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생각한 것을 글로 쓴 다음 거기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오면 지도교사가 첨삭 지도를 해주었다.

사색과 독서를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읽기→생각하기→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되고 바른 삶으로 관점을 조정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1학년 학생들로 조직된 로봇과학 동아리에서는 협동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양시키며, 실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30여명이 모인 베드민턴반에서는 체력훈련과 경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해 주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방학에는 대학생들과 멘토-멘티의 결연을 맺고 2박3일 2007 VISION CAMP를 열어 미래의 나의 꿈을 찾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4월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사랑의집, 등대마을, 겸손의 집, 효도의 집)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역사사지의 생각과 태도를 기르며 봉사활동 학습지 작성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바로 잡아 가도록 하였다.

일련의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통해 전국중학교는 학교 폭력이 감소(8월 이후 발생건수 급감)하고 학생 사안의 재발이 없게 줄어들었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직접 재배한 배추 김장김치 어려운 이웃에 전달

양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대수)는 7일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가졌다.



양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대수)는 7일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가졌다.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만송동 소재 이대부 부녀회장 자택에서 새마을부녀회원, 2687부대장병, 이마트, 삼성중공업 종사원 등 300명이 참가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김장배추는 지난 9월 새마을부녀회원 8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양주2동 인근의 휴경지 3,000㎡ 배추 모종 작업을 하여 가꾼 것으로 지난 5일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6천포기를 수확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하게 되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는 관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

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자원재정을 위한 자원 모으기, 재활용품 알뜰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사랑의 김치를 담가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국악협회 제3회 정기공연 '국악의 향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지부장 이명)는 국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과 국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제3회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 정기공연'을 가졌다.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지부장 이명)는 국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과 국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제3회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 정기공연을 가졌다.

시민과 함께 전통문화의 향기를 통해 초겨울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이번 소리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조교 윤종평씨의 사화로 농악과 회원들의 걸놀이를 시작으로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부 공연은 이명의 양주시지부장의 초한가를 시작으로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엮여나가는 장기타령, 남녀간의 정과 자연풍경을 읊은 난봉가, 우리음악을 바탕으로 기존음악을 틀을 조금 벗어나 공연을 하는 웰빙밴드-크레용의 신푸리가 이어졌다.

2부 공연은 이명의 지부장의 한 오백년, 강원도어리랑, 경기민요의 대표곡인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조대희 황산복의 창부타령, 무용분과와 무용(어우동), 추석초교민요반의 섬마을의 소리(동요메들리), 고

암 중 민요반의 등글레당실출연전원의 함께한 커튼콜 '뽕노래, 자진뽕노래'로 공연은 마무리 됐다. 이명의 국악협회장은 "전통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자랑스런 양주에서 제3회 정기공연인 '우리소리의 맛을 찾아서'를 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옛 문화와 예술은 거울이라 생각하며 또한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더

나이가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다. 이번 국악공연을 통해 양주시가 보존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서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악공연을 확대해 어린학생들부터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악협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제12회 동두천시 농업인의날 행사 열려

600명의 농업인 즐거운 화합의시간 가져



동두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두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등 3개단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600여명의 농업인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모범적인 우수농업인 16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지역 농업발전 에 이바지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감사패가 주어졌다. 또,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기념사, 김홍석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의 농업인 대표 인사, 정성호

국회의원, 형남선 시장의장, 농협단체장들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열심히 행하면 못할 일이 없음(以農心行無不成事)을 강조하고 녹색환경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부 행사인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에서는 1년간 땀흘려 일한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이담 사물놀이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을 시작으로 농업인 전체가 참여한 한마음 운동회와 농업인 가요제, 경품권 추첨 등의 행사가 열렸으며, 락메치기 체험 등의 전통공예를 재현하여 흥미를 돋우고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청소년문화회관 앞마당에서는 따뜻한 국밥을 제공하고 축산물시식회를 개최하여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제26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6·25 및 공산주의자에게 희생된 호국영령 추모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시지부는 1일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반곡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시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유가족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시지부는 1일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반곡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시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유가족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해 북한 공산집단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기 위해 실시됐다.

28사단의 군악대의 주악에 맞춰 종교의식, 지부장의 추념사, 오세창 시장, 형남선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의 추도사, 보영여고 합창단의 조가 합창, 제주와 유가족의 헌화와 분향, 28사단 의장대의 조총과 목패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매년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시지부 주관으로 해방이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사건으로 희생된 자와 6.25 동란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희생된 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희생된 자, 기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으로 위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공훈을 세우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자유수호 호국영령들이 내날이 발전하고 아름다운 조국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드시길 당부했다.

김현이기자 hona25490@hanmail.net

연천군, 가을철 산불 Zero화 준비 끝!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연천군 산림복지과에서는 이번 가을철에는 불철에 비해 계절풍의 영향이 작고 적설 및 습도가 높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적으며 동절기로 진행될수록 건조한 날씨가 누적되고 연료가 건조해짐에 따라 산불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가을철 산불 Zero화를 목

표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순청과 읍·면에 설치 운영한다. 읍면 재책근무자 휴일에도 20시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상황발생시에는 완전 진화시까지 근무하며 종료후에는 균형 재난상황실과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적극적인 예방사업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입산통제 실시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홍보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산불홍보로 산불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홍보물 제작 및 배포로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별 감시 및 단속도 강화하고 방화성 산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검



가을철 강화 활동에 앞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사전발생 자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인재인 만큼, 개인 개인이 불의 무서움을 알고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것이 산불의 모든 원인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등산시의 인화성 물질 휴대를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